아 호즈 (Alicante Bouschet 100%)

Domaine des Amiel　Rose (딸에게 헌정하는 와인)

딸과의 소중한 연결 고리* 앞으로도 이어질 품질에 대한 고리

#도멘데아미엘 #랑그독 #내추럴와인 #비오디나미 #형제 #레드와인 #아호즈 #알리칸테부쉐 #풀바디 #스테이크 #딸 #헌정와인 #가족

브랜드	도멘 데 아미엘 (Domaine des Amiel)		
지 역	프랑스 〉 랑그독		
품 종	알리칸테 부쉐 (Alicante Bouschet)		
등 급	Vin de France		
종 류	내추럴 와인	용 량	750ml
당 도	드라이	알코올	15%

품종블렌딩

알리칸테 부쉐 (Alicante Bouschet) 100%

떼루아

소유한 포도밭 중 가장 오래 되었으며 매년 최고의 포도를 안겨주는 고마운 포도밭. 유기농과 비오디나미 방식의 경작은 토양에 생명을 불어넣어 포도에 고품질의 산도를 부여한다.

재배

Ecocert(유기농), Demeter(비오디나미)

양조

엄격하게 엄선한 알리칸테 부쉐 포도로만 만들어 6개 베럴만 생산하며 24개월간 숙성을 거친다. 병입 과정에서 청징과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 총 생산량 1,800병.

노트

잉크와 같이 깊은 검은색을 띠는 와인이다. 코에서 느껴지는 풍미강도는 매우 높은데 흑연, 모카, 블랙커런트의 싹, 탄 나무 등이 느껴진다. 입에서도 굉장히 촘촘한 밀도감과 동시에 섬세한 탄닌이 느껴지고 약간 탄듯한 스모키 풍미가 느껴진다. 검은 체리와 블랙커런트도 느껴지며 숙성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와인으로 지금 마셔도 좋고 장기 숙성에도 적합한 와인이다.

* 와인의 의미
2018년에 태어난 에메릭의 딸, 호즈에게 헌정하는 와인이다. 가장 오래된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을 가장 어린 세대에게 헌정하며 가족의 연결고리를 강조한 와인이다. 또한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온 품질 향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도 담겨있다고 한다.

※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vinocus.co.kr/
02-454-0750